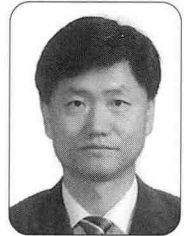


사무기기 산업의 현재와 미래

중고 복사기와 재제조의 명확한 기준 및 제도 확립 시급

재제조 산업과 사무기기 시장의 현안

재제조에 관한 이해부족과 정부의 무리한 육성정책으로 원제조업체와 재제조업체간 첨예한 대립양상과 함께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근래에는 정품을 모방한 값싼 중국 제품까지 시장에 밀려들어와 재제조업체까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재제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신품과 같은 고른 품질을 기대할 수 없고 사후관리와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행위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조업체와 재제조업체간 서로의 기득권을 주장하기에 앞서 지구의 환경보호·자원절약·소비자 보호 차원으로 관점을 변화해야 하며, 정부도 중고품·재제조에 대한 기준과 제도를 명확히 하여 향후 재제조 산업 육성에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글/한국후지제록스(주) 마케팅실 최재봉 팀장

재제조 관련 불명확한 기준과 무리한 시행으로 관련 업계 마찰

경제 전문가들은 미래의 유망산업 중에서 환경관련 산업을 우선으로 선택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 기업들도 환경을 무시한 경영은 불가능할 정도로 기업의 경영에서 환경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간에 의하여 자연이 무자비하게 파괴됨으로써 지구의 자원이 점점 고갈되고 각종 환경오염으로 온난화가 지속되어 멀지않은 미래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우려에서 기인된 것이다. 이러한 자연의 경고에 위기감을 공감한 세계 각국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국제적인 협약(도쿄의정서) 등을 통해 지구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다음 세대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관계부처에서는 최근 이에 관련된 법률을 입법화하고 지구환경의 보호와 자원절약 등에 관한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 중에서 재제조·재활용 등의 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는 법률적으로 불명확한 기준과 현실에 맞지 않는 무리한 시행으로 관련업체와 사이에 각종 마찰과 혼란만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IT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기업의 사무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매년 사무기기의 판매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함께 우리가 평소 가깝게 접하고 있는 사무기기가 환경에 영향을 주는 주

사무기기 산업의 현재와 미래

요한 품목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오피스 제품의 대표적인 복사기와 프린터, 잉크 및 토너 카트리지의 재사용에 관한 문제가 그것이다. 요즘 엄청나게 증가하는 프린터의 각종 카트리지의 경우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방지 차원에서 재사용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재제조에 관한 이해부족과 무리한 육성정책으로 원제조업체와 재제조업체간 첨예한 대립 양상이 빚어져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원제조업체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의 폐기물 회수와 사후처리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정책은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재제조에 관한 확실한 기준이 없어 오히려 재제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한번 사용한 제품을 정상적으로 재제조 할 때가 신품을 제조할 때 보다 비용이 더 든다고 하다. 이는 폐기품의 수거과정과 재사용을 위한 분해, 분리, 세척 등 신품의 제조과정보다 더 많은 과정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밟아서 제조해야 품질면에서도 신품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지구를 살리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반드시 재사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과연 이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재제조업체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원제조업체들에게 법률적으로 주어진 일정량의 폐품 회수정책 때문에 재제조용 재료가 부족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재제조 업체들이 해외에서 폐기품까지 수입하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도 따져 보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는 폐기품뿐만 아니라 정품을 모방한 값싼 중국제품까지 밀려 들어와 재제조업체까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을 지키려면 가능한 국내에서 소모된 제품에 한하여 재사용

을 해야 하고, 재제조를 하더라도 제조설비와 환경을 완벽하게 구비하여 품질 좋은 제품으로 재제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원 절약 차원의 재사용 명분으로 불법 수입 유통되는 복사기

다음은 중고복사기의 문제로, 외국에서 폐기 처분된 중고품을 수입하여 불법으로 유통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관련업체의 주장에 의하면 소비자가 사용 시 안전상 큰 문제가 없고 자원의 절약 차원에서 재사용이라는 명분으로 수입, 판매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후진국가의 형태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산업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신제품의 판매를 위축시켜 새로운 기술 개발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심각한 문제로 접하게 된 관련업계에 이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관련 법률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는 신품의 『안전인증』과는 별도로 『안전검사』라는 제도를 신설하여 중고전기제품도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합법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수입 건별로 『안전검사』를 받게 되어있는 중고복사기가 관련법과 인증기준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재제조라는 명목으로 『안전인증』까지 취득함으로써 법률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재제조에 관한 법률은 오직 환경부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2항과 시행령 제11조 2항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단순하고 명확하지 않아 악용될 소지가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누구라도 한눈에 중고품임을 알 수 있는 복사기가 버젓이 『안전인증』을 취득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이는 신품처럼 안정된 품질을 보장할 수 없을 뿐더러 중고품의 특성상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품과 재제조의 정의 및 기준이 명확해야

현재로서는 재제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신품과 같은 고른 품질을 기대할 수 없고, 사후관리와 단속이 효

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행위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조속하게 재제조의 설비 및 생산과정과 품질기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지금처럼 명백하게 중고품인데도 불구하고 한정된 부분의 시료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안전인증』을 허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모순이다. 그러므로 선진국과 같이 신품의 제조과정과는 별도로 재제조를 하기 위한 공장의 설비와 환경 등 재제조 과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 제조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또한 제조업체와 재제조업체도 서로의 기득권 주장보다는 지구의 환경보호 및 자원의 절약과 소비자를 생각하는 차원으로 관점을 변화

해야 한다. 법률에 정해진 규정대로 양심적이고 정당하게 제조, 수입, 판매행위를 해야 하며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선진국다운 건전한 시장질서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고품에 대한 기준과 제도를 명확히 하여 향후 재제조 산업의 육성에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도 세계적인 관심과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 의하여 재제조 산업은 더욱 활발하게 성장할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 모두가 국가의 법률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하며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중고품 및 재제조의 정의와 기준이 빨리 정해져야 하겠다.

프로답게 생각하고 프로답게 일하는 ProOptics

영문도메인 : www.prooptics.co.kr

한글도메인 : 프로옵틱스

- * 04년 : 부품소재 전문기업 (467-866)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475번지
- * 05년 : 부설연구소 인정, 벤처기업인정서 취득 전화 : 031-635-9732, 636-9732
- * 06년 : INNO-BIZ 인정서 취득 팩스 : 031-635-8732
- * 07년 : NEP 신제품인증서 취득 연구소장 : 이학박사 정진호(011-304-1353)
- * Line CCD용 2um 분해능 PCB, LCD 검사 렌즈 양산 => NEP 신제품인증 (8k : zoom1016, zoom1428), (8k 2.6X dual, 12k 0.38X, 0.53X, 1.25X fixed)
- * 노광면적 ϕ 200, 5um 분해능 LCD 노광렌즈 조립 기술 개발중
- * 0.25um 분해능 Wafer 검사광학계 개발진행 및 특허출원(06년 8월)
- * HDTV급 입체 카메라 개발 완료 및 특허출원(국내: 06년 4월, PCT: 07년 3월)
- * 초정밀 편심조립 기술 개발 및 특허출원(06년 8월)
- * 원자로감시 내방사선 줌렌즈 개발 성공(06년 4월)
- * (지문에 습기가 있어도 가능한)지문인식 광학계 설계 제작

고해상력시대에 아직도 범용렌즈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당사의 맞춤형렌즈는 귀사의 장비 성능을 한층 높여줄 것입니다.